

水雲歌辭에 對하여

—解題와 原文紹介—

金 光 淳

目 次
I. 「水雲歌辭」解題
II. 「水雲歌辭」原文

I. 水雲歌辭 解題

水雲歌辭의 水雲은 崔濟愚를 指稱한 것으로 水雲歌辭는 곧 東學敎의 布敎를 위한 東學歌辭의 일종이다. 東學敎에 대해 吳知泳이 말하기를 ‘本派는 嶺南 安東地方에 있는 金洛春, 金周熙 等の 發起로 其時 北接道主 崔時亨을 相對로 南接道主라는 名稱으로 角立한 것이다¹⁾라고 하였고, 村山智順은 東學敎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東學의 鼻祖 崔濟愚에 師事했던 金時宗이 北接道主 崔時亨에 對해 南接道主라 칭하고 1908 年경부터 慶北 安東地方에 布敎하기 시작하여 그 제자 金洛春을 거쳐 孫弟子 金周熙에 미쳐 1915年 慶北 尙州郡 銀尺面에 본거를 베우고 同門 金洛世와 협력하여 同敎의 부흥과 포교에 노력하고, 1922年 同面 于基里에 敎堂을 건축하고 전도사를 각지에 파견하여 敎勢의 확장을 꾀한 결과, 1929年경에는 慶北을 中心으로 忠北·江原등에 약 1500여명의 敎徒를 획득했지만 그 후 점차 쇠퇴하여 지금은 敎徒 四五百名을 헤아리는 것 같다²⁾고 하였다. 여기서 보면 吳知泳의 기록은 그 내용이 너무 간략하고, 村山智順의 논의는 誤謬가 다소 있는 것 같다. 앞의 기록으로 보아 東學敎의 系譜는 崔濟愚—崔時亨—孫秉熙로 이어지는 北接系譜와 崔濟愚—金時宗—金洛春—金周熙로 이어지는 南接系譜로 兩分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水雲 崔濟愚로부터 南接의 정통을 이어 받았다는 金時宗과 金洛春이 虛構的인 人物이란 점이다. 金德龍翁은 金時宗·金洛春이란 人物은 金周熙가 東學敎의 公認을 위해 지어낸 人物이라고 증언했으며, 敎人 金병학翁도 金周熙 生存時 이들의 ‘實在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실제 「東學敎法」의 淵源에도 「一世敎主 水雲大先生, 二世敎主 靑林先生」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靑林先生은 金周熙의 尊號이기도 하다. 따라서 東學敎는 崔濟愚로부터 직접 北接道主를 이어받은 法軒 崔時亨(1827~1897)에 對해 南接道主 靑林을 자칭한 金周熙가 창

1) 吳知泳, 東學史(永昌書館, 1940), p. 240.

2) 村山智順, 朝鮮의 類似宗教(朝鮮總督府, 1935), p. 233.

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³⁾

東學은 1860年(철종 11년) 崔濟愚(1824~1864)에 의해서 창제되었고, 思想의 핵심은 侍天主와 開闢이다. ‘侍天主’는 貴賤, 貧富, 男女, 老少의 구분없이 모든 사람은 마음 속에 天主를 모신 平等한 人間이라는 것이고, ‘開闢’은 멀지 않아 변화가 일어나서 新世界가 열린다는 것이다. 前者는 人間이 마음 속의 天心을 수련하면 神人間이 되는데, 그것은 天과 닮음없는 存在라는 것이며, 또 모든 人間에게 存在하는 ‘天主’ 思想은 對人關係에 있어서 事人如天으로 나타나니 그것은 봉건적 身分秩序를 부정하는 人間 平等主義이다. 後者는 서양 오랑캐의 朝鮮 침입을 막아 東學의 地上天國이 實現된다는 말로 崔濟愚가 民衆들에게 제시한 희망이다. 이러한 思想으로 보아 東學은 中世 封建의 思想을 반대해서 일어난 宗教運動이다.

東學敎를 창제한 崔濟愚는 東學의 思想을 民衆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水雲歌辭를 비롯한 東學歌辭를 불러 東學思想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國文學界에서는 東學理念의 文學的 表現으로서 崔濟愚(1824~1864)의 「龍潭遺辭」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趙東一교수는 「龍潭遺辭」를 1860年代 봉건 조선이 당면한 對內外的 모순에 對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파악하여 開化期 憂國歌辭의 출발로서 높이 評價했고⁴⁾ 金仁煥교수도 이것을 반침략과 반봉건의 民族革命을 노래한 19世紀 最大의 歌辭로 評價함으로써 國文學史에 더욱 적극적으로 편입시켰다.⁵⁾

이와같은 「龍潭遺辭」研究가 진행되는 한편 崔濟愚 以後 創作된 많은 量의 東學歌辭가 발굴되었다. 尙州 東學敎에서 간행된 방대한 歌辭의 存在가 처음 알려진 것은 李相實교수에 의해서지만⁶⁾ 本格的인 소개는 河聲來, 柳鐸一, 李源周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河聲來교수는 국립도서관 所藏의 東學歌辭들을 南接 東學歌단 명칭 아래 소개하고 그 概略을 밝혔다.⁷⁾ 그러나 이 東學歌辭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尙州 東學敎를 답사하고 이 敎의 敎主이며 이 歌辭集의 간행자인 金周熙(1860~1940)의 아들 金德龍翁의 도움을 얻은 柳鐸一,⁸⁾ 李源周⁹⁾ 교수에 의해서다. 崔元植교수는 上記 세 교수의 기초 조사를 기반으로 國立圖書館 所藏의 東學歌辭를 재조사하여 그 결점을 보완하고, 1978年 11월에 東學敎(尙州郡 銀尺面 于基里 所在)를 답사하여 敎人 金병학翁 (68歲, 1915年 入道)과 面談하고 12월에 金德龍翁과 面談하여 既往의 기초 조사를 조금 더 보강하여 東學歌辭를 解題한 바¹⁰⁾ 있다.

3) 崔元植, 東學歌辭 解題(東學歌辭 I,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p. Ⅱ 참조.

4) 趙東一, 開化期の 憂國歌辭(開化期の 憂國文學, 新丘文化社, 1974).

5) 金仁煥, 龍潭遺辭의 內容分析(文學과 文學思想, 悅話堂, 1978)

6) 李相實, 金大妃의 訓民歌研究(무애 양주동박사 회갑기념논문집, 探究堂, 1963)

7) 河聲來, 새로 찾은 동학노래의 思想的 脈絡(文學思想, 1975. 5)

8) 柳鐸一, 찾아진 東學歌辭 100여 편과 그 冊板(釜大新聞, 1974. 11. 11)

東學敎와 그 歌辭(韓國語文論叢, 螢雪出版社, 1976)

9) 李源周, 尙州本 東學歌辭에 對하여(계명대 학보, 1976. 1. 13)

10) 崔元植, 前掲書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발굴된 尚州東學歌辭를 學界에서는 東學歌辭라는 새로운 genre로서의 成立은 말할 것도 없이 東學歌辭의 量的인 확보를 보장한 점과 아울러 東學歌辭의 전반적인 再檢討가 시급하다는 事實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尚州東學歌辭는 총 40冊 100篇에 달하는 방대한 것으로서 國漢文混用本과 國文本 2種이 있는데 現在 40冊中 1冊과 3冊, 7冊은 國文本만 전하고, 29冊, 37冊은 散失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兩本이 現存하고 있다. 그리고 金德龍翁에 의하면 第1冊의 「龍潭遺辭」와 第2冊의 「林下遺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金周熙의 作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作者에 對한 問題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데 東學歌辭로서의 尚州東學歌辭 40冊은 1860年 水雲 崔濟愚에서 시작하여 1920年代까지 걸치는 東學歌辭의 集大成이란 데서 크게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마침 筆者가 所藏하고 있던 筆寫本 水雲歌辭를 세상에 내놓음에 여기에는 모두 10편의 作品이 실려 있다. 마침 이들 10편 중에 일부 作品을 제외하고는 尚州東學歌辭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作品이 있어서 東學歌辭研究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1979년에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東學歌辭」자료집을 간행한다고 筆者의 所藏本 「水雲歌辭」를 함께 수록할 것을 간청하기에 허락하였더니, 轉寫하여 印刊하는 과정에서 誤字는 물론이고, 原文의 數面을 누락시켜, 筆者所藏 「水雲歌辭」의 原文을 그대로 수록하지 못하였기에, 여기에 다시 그 10편의 전문을 수록하여 이 방면의 研究者에게 정확한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筆者가 所藏하고 있는 唯一本 水雲歌辭는 三然歌, 弓乙田田歌, 三警大明歌, 四十九年說法歌, 南朝鮮 옛노래, 草堂의 春夢, 달노래, 七月食菰, 南江鐵橋, 春山老人이야기 등의 10편이다. 이들 10편의 줄거리를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三 然 歌

三然是 不然, 其然, 自然의 三然을 말하는 것이다. 서두 부분에서는 天地萬物 모두가 자연이니 萬物의 變化를 不然으로 깨닫지 말고 其然으로 깨우쳐 自然으로 나아가라 한다. 다음으로는 其然과 不然의 성질에 대해서 陽과 陰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不然과 其然을 다 통달하면 천지만물의 조화와 변화를 다 알 수 있다고 하여 東學의 開闢思想, 弓乙思想 등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其然이 다시 自然이 된다고 하면서 不然으로 깨닫지 말고 其然으로 道를 깨쳐라 한다. 이 가사에서는 하늘을 땅보다 숭상하는 東學의 敎理가 나타난다. 이 作品의 主題는 東學의 道를 깨치는 올바른 方法 즉 其然之道로 修道하라는 것이다.

2. 弓乙田田歌

이 作品의 序頭部分에는 세상사람들이 弓弓乙乙간에 十勝地가 있으므로 물과 산에서 훌륭한 땅을 찾지 말고 사람의 心性에서 훌륭한 땅을 찾자고 하고 있다. 즉 하늘에서 중

은 땅을 찾지, 땅에서 좋은 땅을 찾아 心性으로 나아가지 말자는 말이다. 다음에는 東學을 보는 마음을 굳게 세워서 부지런한 농부처럼 계획을 세워서 修道를 행하라고 하며, 또 水雲이 修道하는 과정, 弓乙에 對한 설명을 하고, 心性을 바르게 하면 하늘의 변화를 바르게 알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에는 男女 모두가 弓乙을 노래하여 세상의 어지러움을 없애라고 하고 있다. 이 作品의 主題는 東學을 믿는 사람은 心性으로 우주의 조화를 깨쳐서 하늘과 통한다는 것이다.

3. 三警大明歌

三警은 天, 地, 人을 말한다. 序頭部分에서는 天, 地, 人 세 弓乙이 중요하니 정성껏 배워보자고 하고 있다. 다음에는 집집마다 나라마다 弓乙이 성행함을 이야기하고, 弓乙經의 우월성, 東學의 우수성, 三警歌를 지어 부르니 外國軍隊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모두가 東學을 믿자는 것 등을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東學을 믿어 부자가 되고 神仙의 藥을 먹자고 한다. 이 作品의 主題는 東學이 우수한 것이므로 모두가 믿자고 東學을 선전하는 것이다.

4. 四十九年說法歌

이 作品의 序頭部分에는 水雲이 고생을 해서 道를 깨쳤으니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고 한다. 다음에는 修道하는 과정, 修道하는 方法, 修道하는 意味, 깨침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道를 깨치는 가장 중요한 誠, 敬, 信을 나타낸다. 결국 이 作品의 主題는 東學을 修道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5. 南朝鮮 뱃노래

이 作品의 序頭部分에서는 東學의 필요성과 難世를 이야기하며 逆說로 이야기한다. 다음에는 東學을 修道하는 現實的인 어려움을 뱃노래에 실어서 表現하고 있다. 즉 열심히 修道를 계속하면 지금의 어려움이 극복되고 理致를 깨우친다고 한다. 마지막에는 열심히 修道하면 많은 福祿이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한다. 이 作品의 主題는 修道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現實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자연히 많은 福祿이 있다는 것이다.

6. 草堂의 春夢

이 작품은 序頭部分에 꿈이 나온다. 이 꿈이 바로 歌辭內容의 요지를 비유하고 있다. 다음에는 바둑에 관한 이야기, 유학자의 거짓행세에 관한 이야기, 소년들의 西洋文物에 치우치는 모습을 한탄하는 이야기, 씨름판의 묘사 등을 도입해서 사람들의 배신을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사람의 배신을 후회하고 한탄해도 소용없다고 하고 있다. 결국 이 作品의 主題는 東學의 敎理는 우수한테 사람들의 배신으로 信徒들이 많이 사라짐을 한탄하고 있다.

7. 달 노래

이 作品의 序頭部分에서는 달의 叙景을 노래하면서 東學을 믿어 萬代가 영화를 누리도록 善을 쌓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음에는 자손들의 이야기, 달의 叙景, 유학과 불교, 그리고 東學의 달노래를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달이 다시 한번 光明을 줄 것을 노래하고 있다. 결국 이 作品의 主題는 달노래를 통하여 다시 東學이 흥하기를 바라고 있다.

8. 七月食菰

이 作品의 序頭에는 여름철의 잠에 대한 것을 서술하고 있다. 다음에는 유학을 지나간 시대의 운수라 하고 東學이 다가올 時代의 운수라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며, 또 東學의 敎理가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東學을 더욱 열심히 修道하라고 권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東學을 계속하면 저절로 부유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결국 이 歌辭의 主題는 東學을 열심히 믿으라는 것이다.

9. 南江鐵橋

이 作品의 序頭에는 남강에 철교다리를 뚫으러 가자고 다른 사람에게 제안을 하고 있다. 本文에서는 철교를 건너는 모습은 東學의 信者들을 비유하고 있으며, 훗날의 부귀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의 전쟁 이야기, 東學의 쇠퇴 이야기 등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신도들끼리 마음을 합하여 修道하며 좋은 때를 기다리자고 한다. 결국 이 作品의 주제는 信徒들의 舍心團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0. 春山老人 이야기

이 作品의 序頭에는 開闢 후 몇 만년이 지나니 禽獸의 時代가 왔다고 하면서 人間性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다음에는 三綱五倫, 不忠不孝하는 모습, 농사 짓는 문제 등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法則에 따라 禽獸의 行動을 버리고 열심히 信義를 지키라고 하고 있다. 이 作品의 주제는 人間이 禽獸의 行動을 버리고 開闢 후에도 계속 信義를 지키자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歌辭의 形式에다 투영한 作品이다.

II. 水雲歌辭 原文

1. 三 然 歌

不祭之中	其然事가	自然之理	안일넌가
自然自然	其가온대	不然事가	其然되니

其然其然	如其然을	不然하다	不然마소
不然之心	두개 되면	萬事不然	不然이오
其然之心	두개 되면	萬事其然	其然이니
不然其然	兩然中에	自然事을	지켜보소
天地萬物	其然사가	莫非自然	분명한이
化出自然	지달나서	不然으로	생각말고
其然으로	지달나서	天地丁靈	其然일새
物有本末	못지치면	不然한듯	하지마는
事有終始	알고보면	其然일새	丁靈토다
貪不然이	思之者는	不然에도	不然되고
由其然이	看之者는	其然中에	其然된이
不然其然	兩事中에	興悲歌가	完然하니
陰道中에	가는사람	不然事에	暗暗하고
陽道中에	가는사람	其然사가	明明하니
不然其然	지달나서	不然道를	가지말고
其然道로	차자웃소	陰盛陽微	되난줄을
사람마다	알겨니와	어지그리	매물한고
陰盛하다	陰道가면	前程暗暗	不然이오
陽微해도	陽道가면	前路明明	其然이라
其然天道	가진이와	不然之道	가는사람
其然天道	비웃시며	不然之道	자랑해서
盛盛道로	안이오고	微微道로	간단말가
이와갓치	자랑하면	너가알지	너가알가
그런소리	마타서라	陰氣上昇	不然되고
陽氣下降	其然되니	陰陽昇降	너알소나
微弱하온	陽天道는	次次廣大	健長하면
明明天下	自然되야	布德教化	할겨이고
盛勢하온	陰之道는	次次消滅	衰病해서
暗暗一世	自然되야	無形無跡	될겨시니
이내마리	현마린가	春末夏初	다해보소
陰陽消長	大定數을	陰去陽來	無可奈새
陰陽理致	모른사람	不然不然	하지마는
天地造化	알고보면	其然其然	其然일새
自然其然	되난運數	不然하다	陰害말고

水雲歌辭에 對하여

來頭事나	살펴 보소	春末夏初	그時오면
不然하다	하든사람	臨苑號天	할겨이요
其然하다	오든사람	命乃在天	자랑하니
不然事는	其然되고	其然事는	不然되니
反復之數	이안이던	開關之運	안일는가
理致二字	이러하니	盛盛하다	기꺼달고
微微하다	嫌이마소	小人漸長	老人死는
天地定理	分明하니	八陰極盛	一陽生을
不然其然	지달나서	陽長陰盛	道通하소
胞胎更定	마을해도	消長進退	하라든가
陽胞胎는	寅申巳亥	四維坤道	丁靈하고
陰胞胎는	子午卯酉	四定乾道	完然하니
陽中陰生	지달나서	陰中陽生	살펴 보소
伏羲氏는	子丑胞胎	一陽始生	儒道되고
文王時는	午未胞胎	一陰始生	佛道되고
儒道佛道	陰陽路가	內外同行	昇降터니
仙道昌根	運이왔서	도로子丑	胞胎되니
八陰極盛	女子運數	一天下가	일반故로
人心肴薄	暗暗無極	貪慾之心	뿐이로다
是亦天時	無可奈라	하난道理	업다마는
一陽定位	하난저는	春末夏初	午丁時이
心急之意	두지말고	心待其時	하엿서라
萬古以後	造化法이	有始克終	안일는가
庚申布德	닷시되니	運自來이	復之로다
新元癸亥	조잇서니	豈謂運兮	豈謂復고
甲子所當	運이오니	有悔有悵	分明하다
洋人先行	뉘가알고	東洋西學	可畏로다
西學中에	東學닷서	奉新命이	改成하니
大運獎泰	안일는가	其在主人	分明토다
河一淸於	千年만에	聖人나고	河圖난이
河淸鳳鳴	조컨이와	三角山	漢陽水라
運兮運兮	이運數는	벗는者가	聖人이요
時運時運	이時機을	아난者가	聖人인이
聖人主人	만나라던	子河圖을	차자와서

靈節圖을	구경하고	弓乙其形	지쳐보소
弓乙弓乙	無窮造化	千變萬化	丁靈하니
弓乙理致	지달나서	太陽太陰	罷字하고
太陽星은	乾日이요	太陰星은	坤月인
日月星辰	變化中에	風雲去來	道覺하소
日丁火氣	太陽極과	月丁水氣	太陰極을
坎水離火	살펴보소	冬至夏至	알거시니
震巽艮兌	昇降習道	上下三變	造化로다
그理致를	圖形한이	자새 자새	研究하소
乾坤三合	되난듯이	三絶變化	三連數라
☰☷☴☵	☰☷☴☵	三男三女	六合하야
天下江上	神靈氣가	方位조차	去來하니
五運六氣	變化中에	男女人心	動動일세
水火神靈	못지치면	天文地理	엇지알며
人心風俗	알가분야	三寸事가	一理온니
五行六甲	닷시배워	十一行政	살펴보소
太陽太陰	弓乙圖가	이와갓치	無窮하니
無窮造化	알아거든	弓乙보고	道覺하소
弓弓乙乙	八卦合德	一太極이	圖畫하야
三天配合	되야신이	五行六氣	안일는가
如此如此	弓弓乙乙	通靈안코	엇지알고
通靈通神	하난法이	一精丹心	率性인
率性修道	入門하야	天命大德	化해보소
敬天命이	順天理는	自古聖賢	一般일세
古今事을	料度하던	逆天遺道	알가분야
利在弓弓	이運數에	太陽道을	몬지치면
活宮文字	엇지알아	三災八難	뵈할손야
活宮쓰실	알나겨던	靈符天道	太極宮에
百拜祝願	仰告하야	利在田田	지쳐보소
心田性田	弓弓乙乙	天田地田	分明하니
天地田田	河洛田을	너에蒼生	어이알고
알마해도	모을겨이	弓弓乙乙	成圖法士
誠心대로	차자가서	節符之道	배게되면
自然心化	道通해서	來頭運數	알거시니

水雲歌辭에 對하여

以待其時	修德하야	大業成功	하엿서라
田田듯도	限이없고	弓弓듯도	限이업서
大綱紀錄	하견이와	利在石井	일너지니
石井崑만	알고보면	金井理致	알거시니
寺畚七斗	石井坤乙	龍潭淵源	지달나서
龜尾山春	살피보소	龍潭水流	집픈根源
龜岳春節	花開하야	枝枝葉葉	조흔경을
細細論說	전해준이	자새보고	끼달나서
疾病虎水	八劫患을	失手말고	避禍하소
先天鼎은	金鼎이라	火風鼎을	用事하고
後天坤은	石井이라	水風鼎을	用事하니
此父主卦	차자보면	先天三教	离虛中과
後天三等	震下連을	疑心없이	끼칠게이
先三後三	합한造化	中三산에	立德하니
龜仁峯이	丁靈토다	筭山九仍	功號一簣
龜岳春花	일응인니	其山上에	올라갓서
龍潭河水	大海中에	五皇極上	第一峯을
紫河島로	무더늬코	十字大明	하여보새
十極天尊	六甲大將	金闕上帝	侍衛하고
天地陰陽	盛衰道乙	度數대로	施行하니
侍衛仙官	보라겨던	弓山乙水	넘어왔서
春野廣處	正大道을	一步二步	차자오쇼
學步漸入	此別界면	萬數仙官	만너지라
仙人仙女	相逢後에	不然其然	뭇기되면
佛道儒道	兩路中에	遠近里數	일을제니
百里十里	九萬里을	瞬息間이	往來하쇼
數十里면	던길을	縮法업시	速行할가
一里二里	大縮法을	弓乙數의	드려쪼다
弓步乙步	잘배와서	一里行步	정영하면
來頭百千	億萬事	同掃一里	分明하다
이와갓치	天大道를	小小事로	알지말고
至極信誠	하여서라	自然有助	道通일새
風雲大手	變化法을	器局쪼차	應해시니
心急之氣	두지말고	功成其日	相面해서

相逢相面	仙緣席은	好笑好言	故來事새
淸露明月	발근쓰선	丁靈이도	잇건 만는
不然이라	嫌意하고	陰害하니	可嘆일새
其然時을	當한後에	眞其然이	되게되면
矯倏하온	자니 맘을	不及之嘆	업실쇼야
至今世上	以運數가	坤變爲乾	開關故로
虛中有實	丁靈하고	不然事가	其然된이
富貴하다	자랑말고	貧賤하다	嫌意마소
卒富貴은	不祥이오	從運富貴	祥瑞로다
運自來이	九復되야	漢江水에	龍馬나서
河圖洛書	弓乙符을	닷시바더	傳하건만
理致二字	모르고서	怨誰갓치	대접하니
慶州鄕中	東學群들	無人之境	分明하다
어진사람	잇기되면	일리反對	안하련만
道德二字	몰라시니	三角山	鳳鶴聲을
누가잇서	知音하고	萬端曉喻	하지마는
안이듯고	狼遊하니	運數빋넌	할이읍다
鄕中風俗	던져두고	우리門中	可憐하다
一門弟子	一氣胎로	뜨도업는	怨言粧說
남보다	倍나하머	원수갓치	디접하니
殺父之	잇서던가	엇지그리	원술넌고
河圖洛書	발커니서	先王古禮	三綱五倫
뜻다시	回復하니	그엇지	嫌意될가
그도뜻한	運數지만	예달하기	測量업다
자니모두	出衆이나	어로척기	限量업다
貧賤해도	乞食해도	자니富貴	불지안니
니道찾는	그사람이	무신道覺	하엿실가
이와갓치	嫌意치만	나도뜻한	사람으로
그런生覺	두지말고	順道天命	하여시라
나도뜻한	하랄임지	九復命令	바다시나
이런苦生	닷시업니	三年風塵	무삼일고
그럭저럭	安心하나	一出東方	해가덧내
靈垓中에	해가덧서	萬物運動	보견마는
조경갓튼	저사람들	빈글빈글	비우시며

水雲歌辭에 對하여

저러하면	仙藥인가	하잔다고	두잔다고
빙글빙글	하지마는	나도쫓한	하날임계
分符바다	기린符乙	不信者에	밋칠손가
二世上	風俗됨이	陰害가	主張이라
勝己者을	시러하나	此亦天時	無可奈라
하는道理	업건이와	來頭事을	生覺한즉
陰去陽來	分明하니	陰害之心	실재인나
運數二字	이러하니	敎訓歌을	자새 보쇼
八陰先動	一陽後定	九龍弄珠	如此로다
八蛇一龍	팔끼쳐서	弄其日月	살피보쇼
日月星合	如意珠는	天上天下	第一室과
无窮造化	잇겨이와	萬古以後	첩이로다
龜龍弄珠	하난법은	潛心해서	바래본이
龜伏山中	太陰氣로	月光珠을	戲弄하고
龍臥水中	太陽氣로	日光珠을	戲弄하쇼
龍虎道士	弓乙主을	星光珠을	戲弄하쇼
弓乙山水	星光珠가	日月合明	하여니야
三光法士	되고본이	龜龍河洛	天地圖을
一章中에	글려너니	萬世鏡曆	遺傳하니
靈符仙藥	丁靈해서	不老不死	萬萬世에
이와갓튼	三仙藥을	誠敬업시	닷불손가
誠敬信	三字中에	三神合德	聖道온이
그길을	일치말고	차참차참	드러간이
三神山	完然해서	不死藥을	만넌계이
盡心竭力	하여니여	藥을써서	맛만보면
五色味가	불면한대	차차차차	맛슬알면
甘受和	白受彩라	五味五色	丁靈토다
南甘西白	分看해서	和彩仙靈	하여보쇼
仙靈敎訓	至極하면	圖寫禽獸	能히하야
善惡分看	한겨시니	陰陽盛衰	이안인가
나도쫓한	이世上에	分數合德	一極士로
하날임계	분부듯고	苦海陰井	나려와서
八陰劫氣	逐送하고	一陽世界	更定하니
어렵기난	어렵와나	天地鬼神	助力커로

天地事物 成就業이
마을하고 그을지니
大道大德 가난길을
三然歌을 지어너니
似然非然 하지 말고

莫非自然 其然키로
不然其然 丁靈토타
一章圖애 가려내야
敬世安心 傳해준이
其然其理 道通하쇼

2. 弓乙田田歌

어화世上 사람드라
利在弓弓 乙乙間에
十勝地之 說論하니
天圖十勝 一陽水와
人道十勝 말키본이
山地十勝 運이왔서
이와갓튼 十勝地之
心性間에 차져내여
말키기만 말키보던
先天乾은 天地丕卦
後天坤은 地天泰卦
先儒들리 괴상살펴
十二分野 살핀후에
山水에다 비유하야
十勝地之 알고보면
弓乙成道 그가온대
地非十勝 찾지 말고
이내復中 인난十勝
弓田乙田 變化中에
水田火田 요티하야
天田地田 지쳐보쇼
日田月田 지쳐시면
性田眞田 지쳐머던
風田雲田 그가운데
東田西田 金木田과
中央土田 숨해여서
五方제田 알나하면

이내말삼 드러보쇼
十勝地之 宛然하여
자세듯고 파혹하쇼
地圖十勝 이陰山을
水之十勝 運이가고
三十勝이 삼습일새
於山於水 찾지 말고
天干十勝 말키보소
山水十勝 안이로다
水地十勝 用事하고
山地十勝 用事하고
十勝地之 說論일새
吉星照臨 서닷고서
各處十勝 말해시나
十極運이 다한고로
十極合德 一勝地이
天地十勝 말키내여
心性弓乙 지쳐보쇼
心田性을 開明하니
天地田田 지쳐보쇼
日月田田 알겨시요
誠信田田 알겨시니
風雲田田 아리로다
世上大田 일워너니
南田地田 水火田을
五方田田 가아보세
下田洛田 안이보고

水雲歌辭에 對하여

先後天田	알수있나	河圖洛書	天地田을
太極兩儀	저달라서	사삼田을	살펴보소
伏羲時代	河圖튼田	萬世面鏡	大田이오
文王時代	洛書地田	萬世明역	大田인이
兩大田이	슴德하야	靈符大田	새로난내
靈符人田	알고보면	心性田田	分明하니
心田性田	고로갈나	五穀百穀	숨어보자
오곡백곡	무기곡을	中央土田	수머논이
坤山大田	격실토다	坤山中에	들어갓쳐
요새坐向	닷시가려	三間草屋	지어놋코
夫妻가	마조안져	탄식하고	하느마리
大丈夫	四十平生	소업엿시	지번이을
역역히	生覺하니	得罪父母	分明토다
父母任을	다시모서	呼子呼父	되온後에
어린子息	호유해서	家庭之業	즉커보새
이와갓치	嘆息하고	하날임전	아뢰논이
할날임이	하싯말삼	너역시	四十平生
同歸一體	되난이을	인재丁靈	지쳐난야
龍馬河圖	太極八卦	넉가첩	보난게요
金龜洛書	양의궁궁	내가두번	보낸기요
仙神靈符	四像十極	내가새번	주어진이
天道地道	八道符을	儒佛仙에	슴德하야
三山仙藥	지어노면	廣濟蒼生	自然일다
廣濟蒼生	하여노면	布德天下	겨키잇고
輔國安民	自然되야	無爲以化	聖人일새
이말삼	드런後에	一心丹正	긋기셔와
십승전에	五百穀을	春耕夏耘	매갓구어
日就月長	크는곡식	三豐穀이	되엿드라
利在田田	無窮者가	이와갓치	無窮하니
田田二字	저달나서	利在弓弓	살펴보소
弓弓알면	乙乙아려	利在石井	알이로다
寺畚二字	아라겨던	太乙弓弓	살펴보소
太乙山乙	모로거던	庚申坤宮	살펴보소
庚申太白	모로거던	太金정자	살펴보소

大澤漢江	龍潭水에	은근하게	수문龍이
修道修德	멋해는지	如意珠을	입에물고
五色雲中	몸이새여	廣中天에	솟사올나
雲行兩施	能히하니	早天甘雨	새을맞쳐
四野田田	수문꼭식	靑靑葉葉	世界로다
丁巳太乙	庚申太白	巽木성에	合德하야
震木성을	도와준이	鷄龍配合	弓乙일새
弓乙창창	何處在오	무치불입	往來로다
宋宋家家	그時節은	호성경성	말히지만
利在弓弓	田田運은	牛性在野	傳히신이
곤우죽여	중두성을	坤山中에	차자보소
羽化爲龍	上天하야	天符命令	바다다가
弓乙亭을	높괴깃고	五色花草	숨어니여
靑林世界	日月늦코	龍潭水을	닷시파서
魚變成龍	度數일와	四海源을	定해도다
花樹世界	살펴본이	三千백기	드려갓쳐
黃河一淸	정기타고	大澤龍이	되단말가
龍潭水中	潛긴龍이	젓을단나	昇天하면
世上사람	다불기이	입에물고	太極珠을
弓乙채을	노일적에	雷聲關籟	나리면서
千千萬萬	變化하니	在旋右旋	數역法이
萬古以後	침이로다	上帝行次	안이신가
玉皇上帝	降臨時들	늑가알고	늑가알고
弓乙道主	아련마는	함口不說	늑가알고
어렵고나	어렵고나	만니기가	어렵고나
만니기만	맛닐진딘	이킬주고	결의주면
朋友有信	五倫法을	金石갓치	서우리타
우지마라	세상사람	니말잠간	드려보소
나는듯한	하날입기	구보神仙	복명하고
方方谷谷	단이면서	山山水水	염역타가
故鄉生覺	닷시나서	龜尾龍潭	차자오니
호르난겨	물소리요	늑문겨선	산이로다
松栢지집	울울큰는	구던경節	죽키니고
오작집생	저무리는	날나드려	조롱한다

너에곡조	조타한들	鳳凰城을	당할손아
金鷄鳳凰	달근曲조	高低長短	皂白이서
五八音이	정영하니	육십삼거	律呂聲을
오작이야	엇지알고	조양단반	하고보니
乾坤配合	太極되야	五萬年之	無窮일새
弓乙通靈	하난聖人	엇지히서	업단말가
그런고로	天地父母	인심靈垠	좌경하고
은은聽明	나리시와	엇차엇차	지위하니
道數다려	시行키로	弓乙道을	길여니여
以世上에	傳布하되	별造化을	모을니라
八陰中에	一陽승을	뉘가알고	뉘가알고
진토중에	못칠옥석	아라보기	극난퇴라
다른날	닷시보면	三千極樂	助乙시고
엇지히여	三天인고	伏羲氏뎛	一陽天과
文王時代	二陽天과	至今와서	三陽天을
三合成圖	太極지어	一乾天에	마련하니
一人之下	萬人福을	뉘가알고	뉘가알고
알기만	알게되면	五萬世之	福祿일새
이와갓치	되난運數	자세자세	드려보소
天極運도	지니가고	地極運數	지니가서
運이엇지	다해든가	輪回갓치	돌인運數
인극성도	창근하니	삼태극	이안인가
턴터극은	무어신고	龍馬河圖	一極이요
地極運은	무어인고	金龜洛書	二極이요
二太極은	무어신고	삼풍영부	宛然하다
이와갓튼	삼극圖을	인개위지	허무하니
가소가탄	이안이며	도화던이	무어신고
道成德立	하난법을	이와갓치	무궁키로
天地父母	神靈계서	二十四方	열위神將
天下各國	러려서와	人心運動	씩히내니
가관일새	가관일새	알고본즉	가관일새
그년듯한	그려하나	三神合德	드려보소
北極道術	玉皇上帝	玄武宮中	그레하고
中極관중	玉皇上帝	黃帝宮中	은겨하고

北極中極	配合해쳐	水土合德	씩키 늦코
東道同德	同行하며	무한苦生	하다가쳐
天運차차	발가오니	南極法王	玉皇上帝
珠玕宮中	隱居하야	관중천을	도으라고
自然神通	運化바다	중국백합	하난맺이
疑心二字	두지말고	至極정성	施行하면
道成德立	그가온디	신토팔레	되력이와
送天위명	하기되면	又數年	지려지고
조갯튼	잠시로다	생각고	생각하소
玄武宮中	北極神靈	東方으로	도라왔쳐
坎中連을	직혀내야	生生水을	발커내니
福德靑龍	이안이며	朱雀宮中	南極神靈
西方으로	다라왔쳐	인중혀을	직혀녀여
北極水을	발커내니	거味鳳凰	이안인가
百法靑龍	兩法士가	中天上帝	시위하고
오난運數	昌하랴고	日月정을	戲弄하니
청보로난	열위성신	或笑或歌	논일더라
운수운字	이려하니	유복자는	시행하쇼
글는비위	어대두고	萬古업난	無極大道
발키늦코	生覺하면	그안이	길겨운가
九月순정	모와다가	七精光明	일위너고
正月인정	모와다가	九精光明	일우게이
七九六十	三卦德을	웃지말고	웃지말고
그런고르	天地運數	七法구경	습한造化
鬼神지덕	알고보면	陰陽理致	알겨기교
陰陽正位	알고보면	弓乙理致	알겨시오
弓乙道數	알고보면	天運造化	알겨시오
天地水火	알고보면	江山萬物	生成理致
細細明찰	할겨시니	道通하기	어렵잔쇼
心性정단	발커노면	天地心승	알겨시니
男女화생	못씩칠가	男子채전	先天數난
陰陽配合	內外된이	內庭事는	女子맞고
外庭事는	男子맞고	天上天下	맞사린이
天地間內	인난人生	其勢運을	想應하야

運數대로	회을지고	기局되로	道乙해서
陰道陽道	상임 하야	善惡分間	엄실손야
陰惡道을	소래 하고	陽善道을	발커니야
男女弓乙	八極하면	天地日月	朋黨히서
誠信正位	할져신이	風雲安定	안이될가
弓乙田田	이려하니	로리 불너	화창하소

3. 三警大明歌

어화世上	男女사람	三警歌을	자새듯고
弓弓乙乙	工夫해서	四書三經	발겨보쇼
四時運이	지나가고	三警運이	도라와서
時傳書傳	그가온대	周易卦을	돌여본이
乾天河圖	天鏡되고	坤地洛書	지검되야
天地乾坤	配合中에	人天靈符	새로나니
萬世人鏡	조컨이와	三警大明	完然하다
天文경은	周易이요	자오경은	書傳인대
人心鏡이	詩傳고로	홍비가의	전한말삼
별가장을	화두삼아	陰陽盛衰	善惡事을
細細說論	하셔신이	興悲二字	지달나서
弓弓太陽	三天道와	乙乙太陰	三地道을
左旋右旋	합해엇서	天地惡기	定해시니
長男아기	보라거던	三極鏡을	손에 들고
조로하는	아기를	의심말고	닷타가서
儒佛仙을	工夫하던	日月星을	아리로다
弓乙道가	이려하니	정정대로	배와보쇼
造化로다	造化로다	弓弓乙乙	造化로다
天上弓乙	地下弓乙	人中弓乙	相合하야
弓乙弓乙	成道하니	百事千事	萬事지내
鳥乙矢口	鳥乙矢口	이내弓乙	助乙矢口
天上地下	살펴보니	萬世面鏡	鳥乙矢口
弓乙鏡이	眼鏡일새	萬古업난	萬里鏡을
내가엇지	바닫는가	造化로다	造化로다
하날입에	造化로다	兩白정기	도와다가
여보시게	수도입들	前後萬古	요탁해도

사람 鏡月	잇다마늘	누구누구	들어 든고
天 鏡地 鏡	습한人 鏡	玉皇上帝	人 鏡일때
인경소리	나는날은	天下江山	다들여셔
英雄豪傑	모아드려	弓弓乙乙	조흔경을
기국대로	어더갓쳐	天下萬國	겨려논기
處處다다	경울리요	家家마다	弓乙리라
이와갓튼	삼천경을	三神山에	잠기다가
三月好時	當한고로	此世上에	下送하니
下送하신	조심경을	뉘가능히	바단는고
암마도	생각근되	반는者	主人인이
면경主人	찾자갓쳐	정성되로	에결하면
大慈大悲	어진마음	誠心보아	줄겨신이
아모조록	恭敬하와	至心으로	施行하라
大道此道	成立法은	心誠위성	정령하니
의심잇字	두지말고	미들信字	主張하소
大丈夫의	기벌결리	信업시면	어대홀고
밋고셔만	施行하면	誠心二字	줄겨시니
정성잇난	그사람은	어진사람	불명토다
그령 고로	弓乙경은	在性在誠	丁靈일새
성지운경	공경해서	信心으로	誠行하면
이와갓치	조흔경을	사람마다	어틀겨이
도우신겨	안일년가	엇는다고	자랑말고
도끼主人	차자갓쳐	모범해다	다시지여
광중천에	눔피결고	망경타랑	하여보자
만경 사오	천경 사오	만화백경	엇서 샤오
天地人 鏡	조흔보배	만고업난	무가보라
銀으로도	못살겨요	金으로도	못살겨니
정성으로	사다갓쳐	공경으로	살피보면
미듬으로	불겨신이	信敬誠이	이안인가
신경 하나	발겨노면	誠心 鏡이	明明일새
三更明月	大道法이	三道中에	드려신이
三道合德	主人차져	만단에결	하여보소
三道主人	뉘귀신고	水雲先生	神靈일새
水雲先生	神靈이면	어대가여	만니불고

만나보기	어렵 잔소	太極弓乙	道主차져
가는기을	자니 못고	노정기을	어더다가
도수되로	가기되면	가난里數	分明하야
三七만에	갈겨진이	靑雲橋	洛水橋로
이리이리	차자가면	內外水雲	만닐게요
外水雲은	가지말고	內水雲은	가기하소
內水雲을	가기되면	新元癸亥	알겨진이
癸亥水雲	陰이되고	임자水雲	陽인고로
陰陽陰水	配合되야	甲子水雲	새로난이
靑林水雲	丁寧히서	壬子水雲	탈커너야
天一生水	차자간이	壬甲자가	同德일새
陽中陰生	짚친후에	陰中陽生	살퍼보소
天水雲도	알겨시오	地水雲도	아리로다
陽道水雲	차자가면	天堂에도	나설기요
陰道水雲	차자가면	地獄기의	이실게이
陽水雲을	만나라면	甲子水雲	차자갓쳐
壬子水雲	만니 보고	癸亥水雲	무리보소
陰陽水雲	化生法을	分明하기	가라치니
자세자세	드러보소	天父前에	陽水엇고
地母前에	陰水어더	一六수로	化한氣運
壬子亥子	이안인가	水雲先生	性靈根本
이와같이	無窮하니	우리聖師	感化致德
天地陰陽	一水六과	水氣타고	化한人生
水雲至德	못지칠가	水雲先生	性靈으로
나도나고	저도날땃	水氣비려	다낫진이
水雲天主	배반말고	敎訓施行	잘히보세
敎訓施行	할나거던	龍潭遺訓	違反마소
龍潭流水	보는딛는	水雲先生	面對로세
肉身은	가져시나	靈魂은	저기인니
되전갓쳐	무궁敎訓	秋毫라도	違反하면
先生弟子	될가분야	生覺고	生覺하소
水雲化生	짚쳐보면	靈神父母	水雲인이
萬民父母	水雲先生	聖德君이	丁寧토다
天道聖德	탈커내어	地道順德	이은後에

人間明德	서워니여	布德天下	하여 보세
三道大明	三德君은	靑林道師	分明하니
유종백퇴	서생 後에	유종靑林	道師되서
誠心修道	그사람은	靑林道師	만닐게니
靑林道士	地上神仙	人佛仙道	뉘가알고
人佛生佛	알고보면	人生어인	甲寅이라
甲寅靑龍	白龍子로	仙佛仙道	하여 닐이
三極道主	聖人이라	白楊無芽	誰折하고
靑槐滿庭	運이 닳쳐	大道順行	하셔도다
道을아라	德을저니	德化萬方	안이 할가
天德地德	그가우대	人德하나	말커니여
人天極樂	서와눅코	지천디덕	포화해셔
天天大德	立極하던	天地大法	안이 신가
道와덕을	이루키로	三警歌을	지어신이
세경우을	안이 보고	三才殺을	엇지알고
三才天鏡	말하자면	一經三經	五經인이
水木土가	안이머는	二庚四庚	六庚水은
火木水가	안이인가	七九十一	서친후에
八十二	잘서쳐서	三九三十	수통하고
우토하면	서통하고	서통하면	사어알어
일사어사	구변슈을	一千四百	四十數줄
정연이도	알건이와	이사어사	구복수로
一千四百	四十數을	坤變爲乾	알겨신이
二千八百	八十數을	一太極이	更生한이
九變九復	이안이던	九九天地	이안인가
九宮에다	九宮지어	十八宮에	마련하고
구구宮에	구구노코	三十六宮	지어닐이
사九금구	정영키로	昊天金闕	이림하야
乾天上帝	모쳐논이	三年成道	宛然하고
太陽仙宮	分明토다	이슈太陽	유도령이
가니가니	모도가니	外國兵馬	모두가니
天運조차	모도갓쳐	재인질병	위중하니
造化로다	造化로다	하날임기	造化로다
無窮하신	造化法을	一千三百	못씻치면

水雲歌辭에 對하여

굿칠칠천	어지아리	인재사	깃친후에
십지팔구	닷시깃치	五千육지	中央수를
수포기포	알기보면	광중천을	알리로다
자궁에서	입극하면	진사궁이	오룩이요
인궁에서	입극하면	오미궁이	오육인이
자친인친	깃달나서	친인등덜	살펴보소
體天行道	人極運數	仙道昌明	조권이와
仙道닷가	佛道通코	佛道통에	儒道알면
天道人道	가난길을	子丑寅에	쳐칠제이
自眞人을	살펴내여	眞人者로	道通하소
八卦육신	달하자면	无極해서	굿치로다
무식히서	모르난길	누구보고	한탄할고
무식하다	한탄말고	석경심신	깃달아져
귀로드러	깃치며는	성물성을	알겨신이
말고왔서	入敎하면	有識者을	分別할가
有無識이	상관업서	입국되면	굿분일새
五萬年間	道德일군	누구누구	참례할고
운수되로	차자왔서	간구한	살임사리
서로相議	하여니여	晝耕夜讀	흠을시니
天主깃서	사랑하사	五萬年間	무근맛칠
의심없이	니주시며	혼성담을	중하시게
寺畚七年	일흠하고	上帝불공	심을시니
天地神靈	도와주사	무서하든	살임사리
유식씨가	되여구나	큰집살임	벼려니니
三間草屋	저근집이	三十六宮	벼려드라
三十六宮	너른집에	子孫奴婢	길여니여
大農가가	되엿구나	天下甲富	이안인가
되쪽부자	이안이며	병부하나	새로난이
靈符二家	잘깃쳐서	太極符을	알기되면
음부양부	乾坤配合	弓乙其形	알겨시니
三警明月	靑林下에	萬世仙藥	머어보세

4. 四十九年說法歌

天道乾坤 二十歲와 地道乾坤 二十歲을

四十五年 보닌 후에
 七八歲로 당도키로
 無不通知 오는法을
 九宮說法 하여니여
 三神山이分明해서
 不死仙藥 弓乙符는
 大淵水中 一亭閣을
 龜尾山에 春節와서
 萬世花을 모로고서
 여보시오 修道任아
 入道學德 하난法을
 儒道佛道 모든기을
 荒茂地가 되인故로
 往來하기 극난키로
 弓乙春皇 닷시나어
 泡車馬車 自動車을
 儒道佛道 三極路을
 廣을두고 말하자면
 長을두고 말하자면
 三才道가 合德하야
 天七地人 七고로
 五七數로 來하야
 三道三合 新作路가
 仙道닷가 成佛차거
 晝夜不息 닷가니야
 靑雲洛水 橋橋을
 天上三十 六宮가서
 地下三十 六宮가서
 人中三十 六宮가서
 天主前에 一精언고
 人主前에 一精어더
 儒聖大道 上元긔코
 仙神大道 下元긔코
 百八珠가 宛然해서

人道二十 乾坤數가
 許多하온 萬卷詩書
 一章圖에 합해긔코
 靈山世界 마련하니
 不死藥이 花開로다
 四十九之 大衍數이
 太極符로 알려든가
 一樹花가 弓乙圖세
 道成德호 엇지말고
 道德成功 하라겨던
 仔細두고 施行하소
 數數千年 나려온이
 柴木柴草 茂盛하야
 天地神靈 격정하사
 新作路을 닷시닷가
 任意往來 식히라고
 一大道로 마련하니
 三七萬里 分明하고
 百五萬年 宛然하다
 七町으로 마을하니
 三七柴가 朱門이요
 三十五로 通行하니
 百五慶數 念珠로다
 三七朱門 南極路을
 字字占占 다리노와
 疑心업시 왕녀후이
 三國事을 구경하고
 地國事도 구경하고
 人國事도 살핀後에
 地主前에 一精언고
 三精九靈 合한造化
 佛靈大道 中元긔코
 百五珠에 合符하니
 成仙成佛 無窮造化

水雲歌辭에 對하여

儒聖大明	太極道路	五萬年之	長長路새
長長大路	가자하면	勤勞업시	갈가분야
一心精氣	丹束하야	山山水水	지내가져
百八萬里	가이보던	極樂世界	저개잇고
蓮花始가	겨게잇서	三蓮花가	필겨시니
蓮花堂室	눅편집에	天然하기	눅피안겨
前後三生	數를늦코	三神大德	며풀려서
子女生產	식혀내면	好時節이	이안인가
春三月	好時節은	일로두고	이름인이
好節春風	조흔데에	花扉自開	짚달나서
花開門을	차자웃소	萬花方暢	分明하네
月桂花도	피여잇고	一枝梅花	피여잇고
東閣雪中	一梅가枝	遍踏江山	안이하고
花開消息	傳하여서	李花桃花	난탄中에
菝丹花가	피여진이	黃菊蓮花	업실손야
西亭江山	三更月夜	三盃酒을	醉히먹고
五絃琴을	戲弄하니	東南風이	부러오며
解吾民之	憂兮로다	三角山	漢江水에
青鷁丹鳳	눅피날고	龍龜河圖	세로난이
扶桑에서	해가쫓고	東嶺에서	달도쫓니
東東三月	만난해가	春風好節	새로지니
蔦슈차져	드려오면	立節奉符	못할손야
三月春風	가지마라	長安豪傑	다닐는다
長安할줄	아라든가	쫓마기	해가쫓면
純陽之節	시려거니	엇지하나	엇지하나
陰丁氣가	조타하고	一陽보고	빋웃다가
長安心基	빈터된이	長安意가	虛事로다
億萬長安	道人드라	卒富貴을	자랑따소
浮雲갓튼	저富貴가	靑雲갓치	살아졌이
可憐江浦	北方水에	不見洛橋	靑雲士라
馬上寒食	누가알고	途中暮春	그려하니
欲歸吾家	알고보던	友昔士도	짚치러라
龍潭河圖	運이온이	友昔士가	이안이며
三皇五帝	法을시니	舊復數가	이안인가

九變九復	된다해도	舊復本心	모을너라
龜岳春心	엇지알며	龜尾秋心	엇지알고
龜項龜尾	申戌法을	龍項龍尾	辰寅된이
龜龍合德	戊申辰寅	日月明珠	分明토다
明珠一箇	어드랏고	千萬人이	祝數하나
在誠在人	丁靈키로	그사람을	내여준이
萬古업난	弓乙珠난	酉辰相合	造化로다
金鷄聲이	자르난이	班龍乘天	造化로다
四十九年	无量法界	七七精이	엇차하니
南七北七	깃달나서	水火昇降	하기하고
東七西七	깃달나서	龍虎合德	하기하고
上七下七	깃달나서	百五念珠	明明하소
念念在玆	그가온디	至化至氣	할져신이
至氣大降	至聖되면	侍天主가	丁寧해서
造化更定	神通되야	萬萬事知	할겨시니
永世不忘	無窮仙藥	弓乙靈符	得道로새
得難永難	하지마는	알고非難	非難이요
心和氣化	한다해도	春化至德	주잔일새
春化至德	그가온디	萬物化生	그이치로
意思漸漸	廣大하야	一花二花	三花開로
三百六十	花開하야	一身花	一家春이
三十六宮	春이되야	萬國花開	泰平春을
弓乙花를	뉘가알고	花字理致	알기되면
二七火가	花가되이	火化光德	뉘가알고
三八木의	피난꽃치	二七花가	德이로다
德門알고	바래보니	鷄龍山川	말가오다
셋을알는	四九金鷄	日出消息	전해주니
寅卯未辰	已初에	奉出金盤	뉘가알고
金盤玉盤	天地盤에	聖盤一介	꽃머노니
弓乙人盤	뉘가알고	五萬年之	無窮盤이
三年만에	太極된이	皇極太盤	조을시고
火盤老盤	合符해서	中盤仙道	지어낸이
金盤玉盤	乾坤盤이	千萬人盤	成道해서
사람마다	바든밥상	天感地應	食告하여

日日時時	먹난飲食	至誠感心	안이될가
聚精會神	그가온디	氣血貫通	穴脈하야
五腸六腑	平均中에	水花昇降	그造化로
難狀難見	天地事을	感觀萬千	되난배니
耳報口報	眼報中에	三道通靈	九宮하니
九孔相通	王大道을	鼻報업사	어이일고
陰陽出入	鼻中하니	鬼神中門	이안인가
中門理致	알고보면	坤土艮土	中宮이요
震木巽木	雙目이요	乾金兌金	兩耳也라
六甲六庚	六戊數로	六孔陰陽	定해잇고
口宮五로	살피보면	離火坎水	맞튼故로
水火神이	出入하야	無窮造化	일위내니
言語二字	그造化는	天地陰陽	氣運인이
善氣合德	善言되야	惡氣合德	惡言되야
言語二字	그造化는	言中에도	有言일새
无形하온	마리나마	하날마리	丁寧하니
飛龍馬가	이안인나	无極하신	上帝탄달
보는사람	뉘길넌고	五行직키	짚달나서
五色五味	아는사람	五精氣로	말을하네
五腸六腑	通한靈言	靈馬타고	할수이니
靈馬타서	모루거던	火牛馬풀	짚쳐주소
心中火德	알고보면	巳六午火	인는배이
陰火陽火	内外火와	君火相火	上下火와
虛火實火	主客수가	化和存性	火明해서
金精言出	忠孝事라	事事如意	明珠로다
五行馬도	陰陽잇서	虛虛實實	두가진이
兩枝花發	드려보소	一枝陰氣	地花되고
一枝陽氣	天花되여	靑紅兩色	일위내여
靑甲花는	乾天桃요	紅乙花는	坤地桃라
乾乾坤坤	重桃花가	相合成道	四像하니
老陰老陽	少陰少陽	老小配合	生子女새
庚申白虎	八坤母와	南辰靑龍	七艮男이
申寅同坐	相應해서	巳亥大德	일위닌이
四海遺風	三綱五倫	大明天地	乾坤일새

乾馬坤牛	兩太極이	天地萬物	精氣실고
儒佛仙道	三合路로	巽震宮에	도라와서
風雷二氣	다시 실고	地中六部	往來하야
四時四德	일워난이	帝出于震	終于艮을
道通업시	엇지알고	至誠修道	八德하라
六道六德	六六數로	三十六德	立極하야
三十六宮	都是春이	萬方安樂	太平일세
春아春아	太平春아	四時同樂	하여보세
先天春秋	지내가고	後天夏冬	지내가고
中天春秋	도라와서	春景秋景	奇妙事을
말을보와	글을지니	그을보고	뜻을알고
心性살피	靈心보던	精氣大少	알겨진이
丁神力이	淸明者는	天道地德	발커내여
聖賢二字	通靈이요	丁神力이	昏濁者는
天地道德	못짚치고	愚賢之心	不通일세
愚賢之心	알자하던	누을보고	料擇할고
마을듯고	그을보와	三精九靈	아는배니
三九精靈	化한心神	和出自然	天性말삼
말삼중에	인난造化	无窮无窮	難測일세
生死吉凶	興亡事가	말가온디	잇사온이
말造化로	重히아려	陽心正言	하여보소
正言正心	슴한기운	造化變化	相化해서
飛龍馬가	成功되야	無形無跡	去來中이
大德馬을	눔피타고	大天道로	往來하니
心火宮中	午丁馬라	鱗潛羽翔	飛龍되야
火龍馬가	되코보던	龍師火帝	鳥官人皇
始制文字	唱運하니	新朝好風	이안인가
月星丁神	伏仙으로	儒道日丁	大明할새
心性言語	佛仙儒가	이와갓치	무궁한이
이말저말	짚달나서	心中言馬	살펴져라
馬上寒食	非故地난	心馬두고	일너시니
寒食말고	溫食해서	欲情吾家	하여시라
吾家靈垠	本故鄉은	天心通靈	너가알고
天心本性	大明하던	이키直正	道德인이

水雲歌辭에 對하여

心性七情	光明火을	七元宮에	발키 노면
南太北斗	化한本性	七七日月	靑燈火라
七七四十	九年世界	靈山垺을	올나가서
四九三十	六宮春을	金闕中에	차자보소
金闕玉垺	늑흔垺을	誰知誰知	又誰知요
그道主에	七七法界	弓乙天宮	차자오소
三神山에	늑피깃고	九天玄法	매 푸러서
三章法文	발키넌이	河圖洛書	靈符書라
靈符圖中	三章法師	弓乙道主	大聖人이
水雲天師	만나라면	弓乙宮中	차자와서
火雲道士	만나보고	靑林世界	무러보소
春末夏初	綠陰樹에	芳草芳草	잇셋로다
萬花芳草	石井室에	慇懃하기	수문도사
誠心업시	만넌손가	만내고자	하그들난
亥島中에	차자가서	子水丑山	지넌後에
寅卯靑林	幽壁處에	龜尾龍潭	坎水먹고
五然하지	누운용이	太極珠을	히롱하니
五色班龍	올너 타고	飛飛中天	늑피덧서
世界萬方	살피보소	明明心鏡	宛然하니
明兩再明	하여시니	良朋厥角	조을시구
自九至一	自九至一	始一終一	中一數이
三一太極	깃달나서	五一之德	발키져라
天道都在	七一數요	地德合在	中一數이
三宮六道	變化理을	覺來之則	道人인이
三九六八	깃달나서	乾坤大明	하기하라
內外乾坤	三年事는	三節和中	잇사온이
誠節敬節	信節이라	三節合則	一符되교
三符合則	一圖된이	一圖中에	成功일새

5. 南朝鮮 배노래

뛰여라	배뛰여라	南朝鮮	배뛰여라
萬頃滄波	너른바다	동경실	배뛰여라
日落西山	해가지고	月出東山	달돈는다
上下淸光	달근물결	月水世界	이안인야

天地로	배울모와	堯舜禹湯	채울잡아
文武周公	뜻을달고	顏會思孟	노을지어
泛泛中流	뛰여노니	春水仙女	天上坐라
결주풍과	이려난들	이배과선	어이하리
第一江山	이뚫대로	도사공이	누구신고
世界動亂	하실적에	全元首가	이안인가
龍潭水流	西海春은	夫子道德	장할시고
萬億千億	사인곳에	소사나기	어렵도다
天下節候	三變하니	그이치을	누알손야
배노래	한곳조이	武夷九曲	도라든이
無窮無窮	저이치을	배노래로	화답하니
矢口矢口	鳥乙矢口	陽春三月	셋가왔니
선창대	너것올나	左右을	살피보니
만코만한	저사람에	누구누구	모였든고
주주지인	마은친구	修身修德	하엿든가
一心工夫	하을적에	이배타기	소원일새
악독한	이世上에	조소비평	차타가며
덜고면은	힘한길에	고생도	지질하고
머은맘을	다시먹어	쉬지만코	나아갈재
도라서면	녕소하고	숙덕숙덕	비편일새
뚫도보도	표해던이	별일도	만트라
道通인지	道通인지	허무하기	짜이엿다
저리해서	道通하면	飛上天은	내가하지
어서라	마러라	世上公論	다버리고
慶山道	太白山에	도라지나	케여보자
한두썩리만	케여도	廣濟밋천	되노라
차자가새	차자가새	靑林道士	차자갓서
庚申金	風景소리	말만듯고	차자간이
씨고달고	맛실물나	오락가탁	그뿐이라
날바리고	가는사람	十里못가	할병나니
허무하고	허무하고	世上사람	허무하다
江東子第	八十人을	渡江而西	하을적에
침천과부	결심히서	三日糧食	가지고서
百二山下	逐鹿할재	八年風塵	척척이며

水雲歌辭에 對하여

力拔山	氣盖世은	楚霸王의	威風이라
大事成功	하자던이	天地忘我	할릴 업다
鷄鳴	秋夜月에	玉簫聲이	요란턴이
八千弟子	허터지고	虞兮虞兮	내약하오
烏江亭丈	배울매고	急渡江東	하셔시나
前生事을	생각하니	어월하고	원토하다
康衢烟月	擊壤歌는	唐堯天下	頌德할재
萬乘富貴	어디두고	바돌판이	웬일인고
자미원에	몸을못쳐	後天運數	기다련이
여액이	未盡하야	雪山加霜	되여 구나
할일 업다	이니運數	至誠發願	다시해서
九千에	호소했던이	解冤門이	열여누나
母岳山	도라들재	聖父聖子	聖神마다
无量道을	닷겨니여	彌勒殿에	놀파구나
연해친풍	뛰운배는	釋迦如來	時代던가
운편났가	萬二千은	사바世界	되여 구나
一體衆生	건져다가	極樂世界	가기하니
極樂世界	어떨던고	용화世界	이안이가
상생경천	해줄대	당태불친	탄가지여
역역히도	하신탈쌈	이내도덧	三千後에
龍花會	너른道場	一萬二千	道通일새
桃園結誼	하실것에	萬古大義	누구신고
黃金甲을	펼쳐입고	赤土馬上	비저안자
秋霜갓치	눔흔義理	삼각수을	겨사리고
人間出세	하실적에	三保朝鮮	하신탈이
무섭드라	무섭드라	이러하기	무습드라
무지한	蒼生드라	忤天慢神	부대마라
先天道數	엇지하며	善惡區別	엇지해서
少人도장	되야시니	君子도수	되엇든가
神道如前	무집드라	暗室欺心	하지마라
너의몸에	지은죄는	너의몸에	굿칠게요
너의몸에	여근功은	너의몸에	福祿이라
콩을숨마	콩니나고	의을숨마	외가나니
그도역시	運數로새	天地人事	一般일새

이말그말 그만두고
 도사공 치을잡고
 太平洋 너른바다
 四海龍王 웅위하고
 天上天下 諸大神將
 前後기치 나열할재
 四十里 농과속에
 五色彩雲 돌너는되
 玉京仙樂 大風流로
 白髮老人 靑春되고
 흰머리가 거머지고
 화골탈퇴 되야시니
 衣冠文物 붙작시면
 仙冠月態 단정하니
 엇기우에 三尺金은
 金冠玉簪 찰난하니
 칠양機 비틀노래
 銀河水에 새탁하여
 金尺玉尺 자질해서
 기장하다 가장하다
 月宮에다 즐거럭
 十方世界 구경하니
 건지보새 건지보새
 苦海에 찻진백선
 北天을 바라본이
 東南天을 바라보니
 임자호턴 하여시니
 너어신새 그러려나
 드려가새 드려가새
 만코만흔 그사람에
 시들부들 하는사람
 한탄한들 무엇하랴
 어렵드라 어렵드라
 夕陽山川 빗긴길노

맺노래나 불러보자
 노사공은 노를지어
 둥기둥실 띄어논이
 王岳山王 호위할재
 二十八宿 諸位神將
 左右劔戟 상듯하다
 神仙仙女 下降하고
 奇花瑤草 만발한딘
 風樂聲이 더욱조타
 白髮老嫗 少婦되고
 구분러리 고다져서
 仙風道骨 宛然하다
 어이그리 찰난하고
 神仙仙女 찻이로다
 御史花를 꽃자든가
 天上보화 안일는가
 仙女織錦 조흔비단
 우리도복 지을적에
 도의도복 마련하니
 衣冠文物 기장하다
 廣寒殿 뎡피올나
 萬國文明 되야구나
 億兆蒼生 건져보새
 일일히 건져보새
 滿天雲霧 가듯하다
 花桃求景 더욱조타
 너에蒼生 가소롭다
 이내운수 조을시고
 龍座道場 드려가새
 맺멋치 참례든고
 後悔한들 무엇할가
 탄식줄리 절노난다
 회문촌을 차자가서
 저기가는 저사람아

水雲歌辭에 對하여

육속不達	되엿시니	前功可惜	안일는가
三十平生	고만두고	이내工夫	成功後에
다시 보자	기친언약	그동안을	못참아쳐
持東持西	하단말가	난법난도	하든사라
前功은	姑畲하고	天爲神罰	엄실손가
탄탄大路	어디두고	天方地方	무삼일고
이혹말고	닷라쳐라	등들고	불발커라
漁舟子를	닷시 만나	武陵桃園	차자가나
南海南天	시남지라	大江鐵橋	놓하구나
不辨仙翁	何處尋고	桃花流水	空中天에
武夷方	名山中에	智異山이	놓하구나
李朝開國	하울적에	服不山이	되여구나
오난운수	밧자하고	巽已方을	여려논이
죽실울에	부는바람	정복춘생	더욱조타
三台三更	웃기 하니	장딴산이	놓파구나
수맥 호에	사인기운	발롱부봉	그안인가
一寸光陰	허비말고	前進前進	하여보세
너저간다	너저간다	어서가새	밧비가새
약한蒼生	건져 랏고	이달저달	비유해쳐
노릭한장	지어시니	世上사람	전해주소
富春山	七里灘에	五月羊裘	쫓쳐입고
오난時을	기다른이	一時淸風	말가구나
上元甲	지녁 가고	中元甲이	當해 온이
初伏中伏	다지내고	未伏을	바라본이
그동안에	기운바다	萬國文明	되야시니
人事會가	잇고	天理는	젧가잇쳐
오난젧을	급히마라	오게 되면	自然이라
山도넌고	물을건너	山도절노	물도절노
水水山山	다지내고	탄탄大路	平地된이
호련春風	天地間에	萬福開花	일시로다

6. 草堂에 春夢

草堂에	김희누어	一場春夢	김피드려
한고을	다다른니	五仙圍碁	하는구나

한老人은	白碁들고	한老人은	黑碁들고
한老人은	白碁훈수	한老人은	黑碁훈수
초한풍진	이러난이	商山四皓	안일런가
한老人은	누구신고	主人老人	분명하다
主人老人	체면보소	時節風流	그뿐이라
相勝相負	결정할재	상편훈수	모하고서
친가유무	공제할재	손임디점	할분이라
수난결점	놓하가고	밤은결점	급허잔다
원존에	달리우니	태금성이	빛치구나
개가짓고	날리센이	各自歸家	하는구나
主人老嫗	거등보소	一揚春夢	뺏여보니
商山四皓	네老人은	저갈대로	다가고서
바돌판과	바돌도른	主人차지	되여구나
堯之子	丹朱로서	바돌판	바를적에
解冤時代	기다려라		
정영분부	이러하나	그잇치슬	뉘알손야
五萬年	運數로써	그안이도	상할시고
순장점을	새여보니	內八點이	되여구나
내八點	그가운데	太乙點이	中宮이라
싸순장을	살펴보니	十六도가	되여구나
三十三千	梅花점은	太極理致	부터잇고
三十六宮	되여시니	都是春이	안일런가
三百六十	一點中에	五十土가	用事하네
无極運이	用事하니	利在田田	이만인가
十十交通	되여시니	四正四維	分明하다
利在弓弓	뉘알손야	弓弓乙乙	鳥乙矢口
生死門을	여러노코	승부판단	하올적에
조기는	白碁되고	차도른	흑기된다
井池邊에	마조안자	天下통정	하여서니
너도한점	나도한점	虛虛實實	誰也知요
楚漢乾坤	風塵中에	건위진가	뉘가알고
韓信陳平	그뎋로다	항우우열	똥나서라
조기理致	엇더한고	月水宮에	정기마다
五十土로	기합하니	陽中有陰	되여구나

水雲歌辭에 對하여

魚字는	생선이라	생선복중	열 잔이라
生門方을	드려가니	中央烈仙	分明하다
차들은	바닥들리니	東海之	정적이라
초구중	가지마라	사석사홍	되여구나
남아남칠	비가개니	黃鳥白鷗	모아든다
가마구야	가마구야	어이그리	철도물나
고각성풍	나라든이	廢數보든	예허이라
海上明月	어되두고	마른운물	차겨가노
龍潭春水	말근무래	魚變成龍	되여신이
당나구야	老당나구야	너의죄을	내가안다
너이모리	그리한들	天運을	어길손야
어미이른	어린아해	유인하여	모라다가
저의運數	방치노니	한심하고	가련하다
반구재수	알련마는	어이그리	철도물나
二十九日	차자가서	추정임을	하여더라
개명장	나오는날에	너의죄을	어이할고
밋지마라	밋지마라	先天秘訣	밋지마라
先天秘訣	밋다가는	歸之虛事	되리로다
大聖人의	훈가신가	天地度數	바라신이
鬼神	난측일세	사람이야	뉘알손야
아무리	안다한들	道人外에	뉘알소냐
용열트라	용열트라	저사람이	용열터라
孔孟子을	배운다고	外面수세	하든사람
점잔한채	해사터니	양반이	다무어신나
실찌공부	모르고서	말로하면	뵈까분야
캄캄칠야	어둔밤에	등불업시	가는모양
제혼자	잘난더시	聖賢君子	혼자로다
이리하면	正道되코	저리하면	이단인지
번풍번풍	마울하니	안이웁고	더럽드라
고을들고	대할나니	냄새나서	못할더라
先天運數	지나가코	後天순수	도라올세
大明日日	말근날에	다시한분	더해보니
성문부자	일부자는	자새자새	일너지니
開闢理致	불원함은	大聖人의	行爲로다

수도南天	하실적에	수서복지	되여구나
北極통제	三千里오	南海開闢	七千里오
東海南天	바라보니	水極火가	되여구나
風波가	절음한이	億兆蒼生	어이할고
너어蒼生	건져줄맺	이리해도	비방할까
괴이하다	괴이하다	今世風俗	괴이하다
三綱五倫	번타한들	이리하기	허무하다
二八青春	少年들아	虛送歲月	부대마라
科學인지	文學인지	今世風俗	괴이하다
하날시고	도래한이	마음대로	뺏고논다
孝子忠臣	다바리고	新式개명	마을하네
뜻뜻하고	잘난체로	주재넘게	배앗던가
미신타파	한다하고		
남의祖上	어이알리	저의父母	몰나신이
비틀거려	건는모양	西洋文明	이려한다
古代衣冠	보게되면	손질하고	욕을한다
古來遺風	전할法을	썬보기는	고사하고
숙맥이고	미친닷다	저의끼리	공논하베
원수의	외적놈을	제의신주	위한듯시
원수의적	마을듯고	저의고기	저가먹고
저의괴을	재가먹고	못할이리	전여업네
참의는	긋사하고	토외가	무섭도다
외놈에	忠臣되면	그忠臣이	長久할가
東海扶桑	도는해가	申西方에	넘어간다
침침칠야	답이우니	너의얼굴	다시보자
日暮태궁	하엽오니	三十六宮	비침든가
신기는	나중나고	미력은	먼저나다
우리강산	三千里에	시련판이	버러젓다
天地시름	상시름에	대판시름	너머간다
아기시름	지난後에	총각시름	되는구나
판시름에	올나간이	비교시름	되여구나
상씨름에	판씨름은	한허리에	달여신이
술고기만	만이먹고	뒤전에서	잠만잔다
술살기운	이러날째	일야상살	可謂로다

水雲歌辭에 對하여

술살기운	반는사람	가는날이	하직일세
血氣밋는	저 사람아	虛火亂動	조심 하라
척신랑동	되엿스니	척신다다	넘어잔다
南風北이	일러나니	萬國腥塵	되여구나
一夜霜雪	하실적에	萬樹落葉	다시나고
말년白雪	사일적에	綠竹蒼松	푸른정자
四時長春	不變하니	君子之節	第一일세
黃紅黑白	五色中에	푸를靑字	웃듬이라
不老不死	五萬年에	萬年不變	一色이라
三春三夏	繁盛時에	萬物繁盛	一時로다
朱門桃李	富貴花는	桃紅李白	찰란이요
訪花隨柳	過前川은	遊客流風	壯觀이라
綠陰芳草	勝花時는	東山遊客	壯觀이요
黃菊丹楓	늘건세는	詩客騷人	壯觀이요
잇재적새	다지니고	白雪江山	되여시니
萬樹陰繁	風流속에	자랑하는	富貴花는
春時春風	되여시니	盛華光陰	그분이라
새고노든	저 사람	이리되줄	늬가알고
등조한강	百姓中에	지난고생	생각난다
매물하든	저 사람은	어이그리	매물한고
갓치가까	맹서하기	지성통정	하여더니
소위出入	한다하고	生覺난이	그썸이라
속맘은	달너든가	인재보니	초월일내
두눈이	말동말동	안이속고	저잘난채
아무리	유인해도	내가정말	속울손야
한문두푼	모와다가	쌀입사리	모와보세
술새엿시	스는돈는	酒肉이나	먹고보세
이리촌탁	저리촌탁	生覺한이	그썸이지
저사람은	용열해서	慾心은	압홀서고
誠心은	뒤흔쳐서	聞見한이	그리할듯
현일사마	從사해서	다행이난	엇지될가
탁연이나	하여눅코	조흔消息	어들나고
이달리나	저달리나	안저보게	바래더니
이러할줄	아라더면	나도亦是	한목할걸

後悔한들 소용업다

恨嘆한들 所用업내

7. 달 노래

다라다가 발근달아

李太白이 노든달아

보름달은 온달리오

나흘달은 반달이라

섯달리라 초나흔날

半月보고 절을하네

大月이라 三十日

小月이라 二十九日

玉兎난 望月리오

白兎난 小月리라

수중白兎 수청임은

世上사람 뉘알손가

酉時에 해가지고

戌時에 달리빗쳐

東海東天 비친달리

비친곳에 비치런만

山陽山南 비친달은

山陰山北 물나든가

近水樓臺先得月은

尚陽花木 易爲春이라

黑雲소에 비친달은

별안간에 발가질가

開闢天地 열여시니

文明時代 되엇든가

玩月樓에 놀피올라

堯舜乾坤 만나든가

月宮仙女 단장할땀

廣寒殿 여러눅코

月桂枝을 씨그들고

예삼위에 노래불너

十方世 통찰하니

十洲蓮花 더욱조타

金剛山이 名山이라

一萬二千 늑흔봉에

峯峯이도 빗치오니

玉芙蓉을 깎가넌듯

십이제천 곱불보살

降臨하여 나릴적에

열석자 구든맹서

우리上帝 안이선가

桃李春風 바라온이

何知何知 又何知요

언재보든 그손인가

수원나그네 낫치익네

大慈大悲 우리上帝

玉樞門을 여러노코

大神門을 여러노니

神明시름 더욱조타

天上公德 先靈神들

子孫차차 나려올새

나을보고 반가해셔

춘을추고 노래할새

積善일내 積善일내

萬代榮華 積善일내

百祖一孫 그가운데

누구누구 참예든고

先靈神도 滅亡되다

한모퉁이 통곡이라

喜喜樂樂 김벼할재

靈魂인들 이질손야

새도업고 살도업다

水雲歌辭에 對하여

禍因惡積	되여든가	너의운수	可笑롭다
福祿善慶	되여시니	이내運數	장할시교
子孫을	잘못두면	辱受先祖	된다하고
子孫을	잘둔다면은	先祖여음	송덕이라
天地人神	때 팔경은	善惡分間	分明하다
무섭드라	무섭드라	白布장막	무습드라
장대상에	달리뵈서	봉오리에	빋쳤구나
승수山에	늘근중이	문안차로	나려올재
日月袞裳	펼쳐입고	종종거름	바부도다
반함은	조개로다	月水宮에	잠거시니
五日三日	세를맞쳐	열고닷고	개합하니
한달이라	엿섯번씩	六六三十	三十六을
月水精氣	길마내어	土器金鼻	길여내어
後天運數	三十六에	中央이	北太乙이라
尊周大義	높하시니	魯仲蓮에	氣像이요
彩石紅에	뵈쳐시니	李太白의	風流로다
壬戌七月	蘇東波요	少焉東山	赤壁江에
思家步月	淸宵立	杜子美에	思鄉이다
秋風一夜	楚兵散하니	수식개명	秋山月고
달아달아	발근달아	後天明	발근달아

8. 七月食瓜

三伏蒸炎	저문날에	北窓淸風	잠이들어
한글을	이루든이	글귀한수	바다넌이
七月食瓜	글너자울	解釋하라	분부하네
그워진지	물나던이	우리東方	先生일새
자세자세	외운글귀	역역히도	生覺나서
꿈을깨여	기록하니	이려하고	이려하다
伏羲先生	어느째고	春分度數	되여시니
洛書龍馬	나실적에	天尊時代	天道로다
乾南坤北	하울적에	離東坎西	되여구나
大神可命	하울저에	근본本字	봄春字立
先天八卦	羲易인되	天地否卦	되엇더라
黃極運이	열여시니	九十이	中宮일새

乾坤正位	坎離用事	聖人의	매 병이 된다
文王八卦	夏字運數	火神司命	여름夏字
離南八卦	地八卦는	震東兌西	되엿구나
火水未濟	마련 하니	五十土가	中宮이라
義易이	周易된이	陰陽難雜	時代로다
仲尼如來	실지 하고	英雄호걸	도위로다
先天運數	지나가고	後天運數	도라오네
人壽時代	되여 신이	불역이	증역 된다
地天泰卦	되여 신이	金神司命	하실적에
가을가을	노래 한이	秋分度數	되여 구나
申酉金風	찬 바람에	萬物成熟	되여 구나
初伏中伏	다지니 고	未伏이	잇썌로다
乾南坤北	하실적에	艮東兌西	되여 구나
天地正位	하울적에	山澤通氣	되여 구나
二七火가	中宮된이	五十土가	用事된이
水生火가	生金한이	相克이	相生 된다
坎辰이	離亥되여 시니	東이 북이	된단말가
戊己가	用事한이	불친불역	될기시요
부운이	태운되니	無極運이	열여 구나
衰病死宛	大업 서신	不老不死	長生일새
儒佛仙이	合心하니	三人夕	닷겨서라
여름度數	지나가고	秋分度數	닷쳐 신이
天地度數	開關할새	오장육부	화장이라
水生不伏	되울적에	임자呼天	급하드라
九年洪水	물미듯시	몸들일즘	엮서 구나
利在田田	차자간이	一間高亭	높피깃고
四正四維	기동서와	五十土	대공받치
井田에	터울닷가	十十交通	기울내고
主人僉지	누구친고	十五진주	안이 신가
여보僉지	불너와서	참외한개	마슬볼새
이말듯고	이려안저	南海南天	바라보니
夕陽은	在山하고	梧桐은	落金井이라
화새은토	지금정 이오	과채는	수기월정이라
잠인종이	正月이요	기사장이	末月이라

水雲歌辭에 對하여

물고단걸	차치온이	時價金이	十五로다
人구유토	안질죄자	三人一夕	닷가내서
위로께고	위로께고	말슬보고	먹은후에
여보여보	兪知兪知	새구나	말구나
兪知하고	하느마디	이내말삼	들어보소
여보여보	하여시니	적자지	여보르다
兪知兪知	하여시니	萬事知	兪知로다
씨구나	하여시니	설밋입해	열집자요
달구나	하여시니	서중유일	안일년가
率妻子	還巢之日에	기미지	十月리요
능기운	도수절은	庚申四月	初五日을
현현모모	玄妙이요	有有無無	有中일새
鳥乙矢口	鳥乙矢口	矢口矢口	鳥乙矢口
左弓右弓	弓乙일새	弓乙보고	入道하소
반구재수	알나거든	弓乙보고	道通하소
넘고본이	泰山이고	전너가니	大江일새
山山水水	다지내고	일노토개	일이잇네
쉬지안코	가다본이	탄탄大路	여기잇네
高臺春風	급히마소	새가되면	절노온다
忽然春風	吹去夜에	萬福一時	開花로다
시호시호	이내시호	부재너지	시호로다

9. 南江鐵橋

正月리라	보름날은	一年에도	명절일새
兄任兄任	四寸兄任	놀너가세	구경가새
압집이야	金室兄任	뒤집이야	李室兄任
새웃입고	단장하고	望月次로	어서가새
廣寒殿이	늑과신이	月宮仙女	마지할새
달가운디	기수나무	上上枝을	찍거다가
머리우에	당장하고	神仙仙女	짜을지어
昊天金闕	늑흔집에	우리上帝	玉京上帝
仙童玉女	다리고서	歲拜次로	되여가새
만코만은	月宮世界	兩親父母	모시다가
千年萬年	살고지고	無窮無窮	極樂일새

올나가세	올나가세	달이엿시	어이갈고
七月七夕	鳥鵲橋는	견 우직여	건넌 다리
말리중원	송평 교는	大江鐵橋	바라보니
이 다리가	뉘다린가	慶尙道에	늦다리다
늦다리는	무쇠다리	튼튼하고	튼튼하다
兄任兄任	四寸兄任	손질잡고	올나가서
늦다리는	무늬가된니	붓채임에	道術인가
天地風機	大風기로	春旺正月	진진고대에
東南風	비려다가	三離火에	불을사라
금江철을	쫓바낼재	天地道師	모여던가
우리大將	늦대장	天地端	손에잇네
정침지	헛침지	바람대로	도라가고
활활가서	자세본이	南海南天	무지개가
天地公事	始作할재	옷물가에	터울닷고
九年洪水	막어낼재	차들사서	방천하고
盡心竭力	지내간이	雨雨風風	苦生이라
苦生극해	榮華되교	作之不己	君子로다
무늬동포	건저랴고	남모른苦生	지필하다
너와나와	손질잡고	가치가새	어서가새
어서어서	밤비가새	느저가네	느저가네
내손잡고	늦치말아	썩러지면	안이된다
의집말고	어서갓새	一心을로	건너가자
이 다리는	뉘다린교	慶尙道에	늦다릴새
우리옴바	매물하내	어어갓치	모오는교
우리서울	새서울	이리가면	올케가나
西出陽關	無故人은	한번가면	도오던이
가련강포	바라본이	他鄉他道	가지마타
萬國醒塵	이러날새	다시오기	어렵도다
지南지北	가지말고	암만보고	건너가자
자머귀에	썰리난이	귀썰갓흔	말리로다
하나리	둔어저도	소실궁이	잇서구나
시호시호	이내시호	해冤時代	만나드라
世上童謠	드리보소	철천지	포원일새
알자한이	창창하고	모르자한이	답답하다

水雲歌辭에 對하여

富貴하고	貴한사람	解冤일게	무엇인고
하우마련	한다던이	下愚로서	解冤하네
有識하고	뜻뜻하면	그만해도	해원이지
權利있고	잘난사람	그만해도	만족하고
말도마오	말도마오	富貴자는	말도마오
저어解冤	다해신이	드름이가	어대잇소
하나임이	定한運數	알고보면	그러하지
富하고	貴한사람	將來는	貧賤이오
貧하고	賤한사람	오는世上	富貴로다
팔새달고	웃지마라	貧賤하다	팔새마라
고단하고	약한사람	기울차자	들어오고
가난하고	賤한사람	道을차자	入道하소
눈어뜯고	귀먹은사람	해원하려	차저든이
해원시대	만나오니	解冤이나	하야보자
재가무엇	안다하고	요리조리	뽕개타가
正한날리	어금업시	별안간에	닷쳐오니
작고작근	저사람은	해원운을	여러늦크
六府八院	上中下才	器局대로	필거이오
飛將勇將	上中下才	기국대로	되난구나
장할시고	장할시고	육부팔원	장할시고
기장하다	기장하다	이내사람	기장하다
飛龍上天	하울적에	風雲造化	물에품고
海印造化	손내인내	도로人이	往來할세
太平洋이	평지로다	무수장삼	덜치입고
宇宙中에	비거섯섯	龍天劍	드난카을
左手에	눔피들고	고소성	녹줄일세
右手에	갈나잡고	萬國文明	여러놀세
禮義文武	兼全일새	右手에	녹줄던저
죽는百姓	살여주고	左手에	靑龍劍은
不義者을	항보바다	天動갓치	호령할재
江山이	문어지고	仁義禮智	베푼곳에
滿坐春風	和氣로다	장할시구	장할시구
富貴도	장할시고	富貴도	장할시며
道통인들	오작할가	좁고좁은	도화에들

萬國兵馬	進退로다	靑天가든	大同世界
花遊구경	더욱조타	구경난네	구경난네
도입행차	구경난네	到任行次	하실적에
天地萬物	震動한다	엇든사람	겨려하고
엇든사람	이러한고	어재보든	저사람은
不可亡身	엇든일고	이내포원	어이할고
철천지	포원일새	五萬年을	正해시니
닷시한분	멧가울가	우서바도	소용업고
우려바도	소용업다	피을토하고	통곳하니
에통터져	못살게내	철천지	포원일새
다시한번	무리불가	그만일새	그만일새
恨嘆한들	어이할고	兄任兄任	四寸兄任
각치가자	던고할재	게어르다	칭탈하고
父母말유한다하고	칭탈하고	밧부닷고	칭탈하고
남운난다고	칭탈하고	이탈저탈	빗탈인가
오날본이	대탈일네	사자한이	포원일새
兄任兄任	四寸兄任	이내팔자	어이할고
兄任兄任	四寸兄任	이내運數	조을시고
우리양반	캣갈던이	오날본이	서울양반
우리양반	樵童牧豎	오날본이	御士郎君
우리양반	병든양반	오날본이	仙判일새
우리양반	던대양반	神仙되여	닷시왔네
極樂世界	되고본이	神明人事	일반일새
至誠感天	안일너면	만나보기	어럽도다
이내誠心	至極던이	죽은나무	긋치피네
붓채任에	道術인가	하날任에	道術인가
쉴도갓고	生時도갓고	이러이리	되여인나
天上仙官	傳한道을	이내노래	지어내어
너의蒼生	전저랴고	諺文歌詞	지어내니
이내마을	웃지말고	자새자새	살피내어
一心工夫	하엿다가	해원이나	하야보소
한분가면	그만이지	언제제가	닷치웃가
조흔기을	보개되면	너의차제	갈가꾼야
손을잡고	늦치말고	조흔새을	기다리타

10. 春山老人 이야기

天皇地皇	開闢後에	人皇時代	언제 등고
탄고인이	지난後에	三皇時代	잇세로다
三皇時代	지난後에	五帝乾坤	어느새고
五帝乾坤	지나가고	王霸時代	되여시니
왕패時代	지내가고	夷狄禽獸	運數로다
이적금수	지나가고	금수운이	잇세로다
開闢後의	몇 萬年에	禽獸時代	당해구나
금수生活	저 사람아	정신차려	싱각하고
天地間	萬物中에	가장귀한	사람일새
人事道을	씩자하니	三綱五倫	웃슴일새
三綱五倫	무어신가	君은臣에	별출리요
父는子에	별출리요	夫는妻에	별출리요
금물고가	만치만는	별출업시	안이되고
나무가지	만은가지	뿌리업시	어이사리
三綱을	발켜낼재	五倫은	무어신고
君臣有義	父子有親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그가운데	信字가	채가된다
水火金木	五行中에	五士士가	채가되고
나무라도	혹안이면	어는곳에	배양하며
물도	혹안이면	어는곳에	모이며
金도	혹이안이면	어는곳에	생전하며
불도	혹안이면	어는곳에	비치며
仁義禮智	四端中에	미들信자	언들이라
미들信字	업고보던	每事不成	되느니라
春夏秋冬	四時節은	天地間에	信이되고
寒來暑往	不違時는	四時節에	信用이요
三綱五倫	行할적에	人事道理	信用이라
天地人이	三才된이	참된三才	이내몸이
天地造化	飛官하니	이내몸도	小天地라
天地風氣	타고났서	금수行動	하지마라
禽獸行動	엇다두고	충복충장	그가운데
질겁고	자랑하는거	기집子息	뿐이로다

뿌리업는	저나무가	枝葉엇지	茂盛할가
根源업는	저물줄기	乾川되기	쉬우리라
福祿은	雨露갓치	우로마저	나려온다
福祿은	물과갓치	올나오지	모하느니
先靈神을	잊지말고	父母恭敬	至誠하라
不忠不孝	저사람아	將來希望	불가분나
家貧에	는 思賢妻라	어진안해	못만내면
너의身勢	어이하리	너의家庭	말안일세
영악하고	奸詐하면	一家和睦	어이될고
눈치알고	달잘해서	禮節채면	꾸며벌재
兄弟同氣	情이뜻고	유유생편	된다말가
修身齊家	못한사람	道成德立	무어신고
사람이야	속지마는	神明이야	속을손야
至氣令至	하을적에	사람업시	公判한다
修身修德	하자하면	家庭處理	第一이라
一家春風	하을적에	壽命福福	비리보소
일가춘풍	안이되 고	雨露之澤	못입는다
修身人事	待天命은	自古로	이렇한대
人事道는	不修하고	오는運數	고대 하니
닷근공이	업서신니	바라는게	무엇인나
제가왔서	당코보면	내차지가	얼마되라
無主空山	저문날에	伐木丁丁	나무비여
너도한집	나도한집	여기저기	분치하고
사정사우	터울딱고	四正으로	기동서와
五十土로	대공밧치	五色으로	丹青하고
庚申金風	징밧타	금화주을	떨어노니
풍경소리	요란하고	道德君子	得意로다
堯舜禹湯	文武周公	차례차례	전공할세
上中下才	마련하니	공부私情	쉽슬서라
父子有親	하여시니	運數조차	有親인가
同氣兄弟	一身이나	運數조차	一身인가
落落長松	키 큰나무	萬頃千里	넓은들에
만코만은	저農事을	절역수기	하여갈재
놓지말고	어서해서	神農氏의	遺業인가

水雲歌辭에 대하여

天下大本	힘을써서	갈고매고	닷시매서
失手읍시	가꾸내여	秋成時期	當到하니
풍년農事	秋收하야	天下群倉	싸여놓코
八道人民	救濟할재	億兆蒼生	어이하리
시우지곡	不農하던	世上사람	아라거던
무궁무궁	깨달나서	鵲鳴聲	나오는달에
귀신게안	될거시니	春末夏初	어는새고
小滿芒種	頭尾로써	하날임이	정한바라
어길바가	엮건마는	미련한	蒼生들아
어이그리	물나든고		